

특 집

예방의학의 발전을 위한 학술활동

임현술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Future of Scientific Research on Preventive Medicine in Korea

Hyun-Sul Lim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Dongguk University

The Korean Society of Preventive Medicine has undergone continuous development, after overcoming the difficult early years, in the 59 years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47. It has repeatedly upgraded its quality and quantity of research with the first journal edition in 1968 and the continuous increase in publication numbers, scientific articles, joint research projects, intra-field exchanges and participation in various international scientific activities.

In the future, we should gather a more extensive collection of opinion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clinical preventive medicine specialists and prepare for the establishment of a training program for clinical specialists into a preventive medicine residency course. Moreover, we should raise interest in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individual information and maintaining medicine ethics. It's impossible to develop academic activities without cooperation. We need such cooperation with basic medical approaches across a wide range of fields. Furthermore, we should strengthen our cooperation with aspects of clinical

and drug epidemiology in many fields including public health, statistics, and dietetics. Finally, we should raise the leve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many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to prevent diseases and promote health.

Preventive medicine is a science in which practice is as important as theory. We must aim to nurture preventive medicine specialists who practice in many areas of society with the goal of preventing diseases, promoting health, improving fertility, and securing healthy elderly life for individuals and the entire population. To this end, we will endeavor to promote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components of academic development.

J Prev Med Public Health 2006;39(2):105-109

Key words : Preventive Medicine, Research, Publications, Futurology

서론

학문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와 학술활동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연구란 이미 알려진 지식을 검증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예방의학에서 연구는 예방의학의 학문성을 발전시킴으로써 예방의학의 존재를 확립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학술활동이란 습득하여야 할 지식을 전체적으로 또는 중점 사항을 중심으로 발표하거나 서술하는 활동을 뜻한다. 예방의학자는 예방의학 분야의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논문을 작성하는 학술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예방의학은 1947년 학회가

창립되고, 1968년 예방의학회가 발간되면서 60여 년간 많은 학술적 업적을 이룩하였다. 예방의학의 학술활동은 역학, 환경 및 산업, 의료관리 등 규모와 내용, 수준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다. 임상역학, 유전체역학, 병원관리, 의료정보, 건강증진 등 예방의학의 분야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학술분야의 범위도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왔고 계속 확대되어 갈 것이다.

예방의학은 의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학문으로 존재할 것이고 활발하게 연구되고 실천될 것이 분명하다 [1]. 그러나 예방의학의 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과 예방의학 전공의 지원자가 감소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긴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바이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예방의학의 학술적 업적을 검토하고, 학술분야에서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예방의학의 학술활동

질병치료와 더불어 질병예방에 대한 역원은 인류 역사가 시작한 때부터 있었을 것이다. 원시 유적에서 치료와 예방에 대한 노력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는 사실이 이 점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히포크라테스는 질병치료 체계를 수립하였지만 질병예방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그러나 예방의학의 학문적 체계가 확립되기 시작한 것은 페텐코퍼가 'Experimentalle Hygiene'을 독립시켜 환경위생학을 출범시킨 것이 시효이다. 그 후 파스퇴르, 코흐 등에 의하여 미생물에 의한 병인론이 밝혀지면서

발전하여 왔다 [2].

우리나라에서 전염병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 백제본기 시조 온조 왕조에 나오는 ‘四年春夏早飢疫’이란 기사이다. 그 후 통일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여러 전염병이 창궐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3-5]. 1885년 왕립 제증원이 설립되면서 서양의학이 도입되었다. 1895년 콜레라 방역 활동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호열자 예방규칙’을 공포하고 방역국을 설치하였다. 조선시대 말기 지식영 선생에 의하여 제너의 중두법이 도입되었으며, 이를 우리나라 예방의학의 효시라고 규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2]. 1925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 위생학교실이 창설되고, 1927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에도 위생학교실이 창설되었다 [6,7]. 1935년 이영춘 박사가 소작 농민과 가족 2만 명에 대하여 개정 부근 농장에 무료 순회 진료와 보건 사업을 시작하였고 1941년 옥구군 학교위생회를 설립하고 회장에 취임하였다. 1948년 농촌위생연구소, 1951년 농촌위생원을 설립하였다 [8]. 농촌위생연구소는 농촌위생잡지를 1951년 창간호, 1953년 2호, 1970년 3호를 발간하였다.

해방 이후 대한예방의학회의 설립과정과 학술활동을 살펴보면, 1947년 5월 조선보건학회가 창립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1950년에 반발한 한국전쟁으로 일시 활동이 중단되었다. 조선보건학회는 1953년에 학회재건총회를 개최하고 명칭을 위생학회로 개칭하였고, 1958년에 다시 대한예방의학회로 개칭하였다 [9]. 조선보건학회가 창립된 1947년을 시작으로 하여 올해 59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동안 대한예방의학회의 학술활동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술지를 발간한 것이 근간을 이루어왔다.

학술대회는 1947년 1회가 개최되어 4편의 연제가 발표되었고, 1948년 2회에는 22편의 연제가 발표되었다. 그 후 꾸준히 발표 연제수가 증가하여 2005년에는 구연 발표가 93편, 포스터 발표가 133편으로 증가하였다. 추계학술대회 위주로 연제가 발표되었지만 (Table 1) [7,9], 최근 동계심포지움, 춘계심포지움, 하계워크샵 등을 통

Table 1. Venue, date, and number of presentations of symposium by year [7,9]

Year	Sequence	Venue*	Date	No. of presentations
1947	1	서울의대	May 10-11, 1947	4
1948	2	서울의대	May 28-29, 1948	22
1949	3	서울의대	May 1949	22
1952	4	이화의대	May 11-12, 1952	22
1953	5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May 30-31, 1953	85
1954	6	서울의대	June 20-21, 1954	85
1955	7	서울의대	June 11-12, 1955	85
1956	8	서울의대	May 26-27, 1956	85
1957	9	서울의대	June 8-9, 1957	85
1958	10	서울의대	June 14-16, 1958	85
1959	11	서울의대	October 9-10, 1959	85
1960	12	서울의대	October 9-10, 1960	85
1961	13	국립보건원	October 14-15, 1961	85
1962	14	국립보건원	October 26-27, 1962	85
1963	15	서울의대	October 7, 1963	38
1964	16	연세의대	October 9-10, 1964	25
1965	17	국립보건원	October 23, 1965	35
1966	18	서울의대	October 22-23, 1966	61
1967	19	경북의대	October 23, 1967	61
1968	20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October 4, 1968	76
1969	21	가톨릭의대	October 17-18, 1969	44
1970	22	서울 풍전호텔	October 30-31, 1970	44
1971	23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October 15, 1971	46
1972	24	국립보건원	November 10, 1972	67
1973	25	연세의대	October 30, 1973	-
1974	26	춘천 세종호텔	November 1-2, 1974	72
1975	27	대구 금호호텔	October 23-24, 1975	60
1976	28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October 23, 1976	48
1977	29	광주 가톨릭회관	November 4-5, 1977	58
1978	30	한양의대	September 30, 1978	51
1979	31	경희의대	October 12, 1979	49
1980	32	연세의대	October 24, 1980	34
1981	33	부산 극동호텔	October 30-31, 1981	50
1982	34	인구보건연구원	November 19, 1982	59
1983	35	가톨릭의대	October 28, 1983	58
1984	36	대전 유성관광호텔	November 9-10, 1984	36
1985	37	경주 코오롱호텔	November 7-9, 1985	36
1986	38	전주 코아호텔	November 7-8, 1986	OP 35, PP 22
1987	39	서귀포 KAL호텔	November 5-7, 1987	OP 55, PP 29
1988	40	경주 도큐호텔	November 3-4, 1988	OP 69, PP 28
1989	41	부산 해운대 한국콘도	November 2-4, 1989	OP 48, PP 27
1990	42	전남지리산플라자호텔	November 1-3, 1990	OP 63, PP 24
1991	43	광주 무등산온천관광호텔	October 31-November 2, 1991	87
1992	44	제주 하이얏호텔	October 29-31, 1992	OP 73, PP 19
1993	45	무주리조트	October 28-30, 1993	OP 81, PP 26
1994	46	경주 힐튼호텔	October 27-29, 1994	OP 126, PP 27
1995	47	경주 힐튼호텔	October 26-28, 1995	OP 135, PP 27
1996	48	경주 힐튼호텔	October 24-26, 1996	OP 125, PP 26
1997	49	용평 드래곤밸리	October 29-30, 1997	OP 47, PP 67
1998	50	대전 유성리베라호텔	October 29-30, 1998	OP 139, PP 23
1999	51	부산 해운대파라다이스호텔	October 28-29, 1999	OP 132, PP 44
2000	52	설악 일성콘도	October 26-27, 2000	OP 113, PP 56
2001	53	설악 일성콘도	October 25-26, 2001	OP 126, PP 57
2002	54	경주교육문화회관	October 24-25, 2002	OP 171, PP 63
2003	55	강원 보광휘닉스파크	October 23-25, 2003	OP 81, PP 136
2004	56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October 28-30, 2004	OP 113, PP 99
2005	57	대구 그랜드호텔	October 27-29, 2005	OP 93, PP 133

*written in Korean language, OP: oral presentation, PP: poster presentation

하여 다양한 학문적 교류와 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학회가 창설된 지 21년이 지나 1968년부터 예방의학회지라는 이름으로 대한예방의학회 소속 학회지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예방의학회지를 발간하기 이전에는 예방의학의 연구 성과가 공유되고 축적되기 어려웠다. 이 기간 동안 기초의학 관련

논문들이 발표된 중요한 학술지는 대한의학협회지, 중앙의학, 최신의학, 종합의학, 한국의학, 현대의학 등 영리·비영리 종합학술지, 항공의학과 같은 군진 학술지와 임상의학 분야 학회지 및 각 의과대학의 학술지 또는 학보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보고에 따라 예방의학 관련 논문들도 이러한 학술지에 주로 발표되었을 것

Table 2. Publication status of the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1968-2005)

Year	Volumes	Issues	No. of articles
1968	1	1	8
1969	2	1	6
1970	3	1	9
1971	4	1	9
1972	5	1	15
1973	6	1	14
1974	7	1	38
1975	8	1	9
1976	9	1	18
1977	10	1	23
1978	11	1	14
1979	12	1	15
1980	13	1	14
1981	14	1	14
1982	15	1	24
1983	16	1	23
1984	17	1	30
1985	18	1	15
1986	19	2	29
1987	20	2	32
1988	21	2	47
1989	22	4	57
1990	23	4	39
1991	24	4	44
1992	25	4	33
1993	26	4	47
1994	27	4	57
1995	28	4	64
1996	29	4	62
1997	30	4	66
1998	31	4	64
1999	32	4	61
2000	33	4	57
2001	34	4	52
2002	35	4	44
2003	36	4	48
2004	37	4	50
2005	38	4	62
Total		93	1,313

이다 [10].

1968년부터 예방의학회지를 발간하기 시작하여, 1985년까지 연 1회 발간,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연 2회 발간, 1989년부터 연 4회 발간하였다. 1980년대 후반 논문 사독을 거쳐 게재 여부를 확정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고, 편집위원장 임기를 장기화하여 학회지 편집에 일관성을 부여하였다. 1998년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었고, 2001년 등재학술지로 등록되었다. 2000년에는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에서 주관한 평가에서 우수 학술지로 판정되어 KoreaMed 등재가 결정되었으며, 2002년에는 KoMCI 2000 한국의학학술지의 인용문헌 우수 영향력 지수 학술지로 선정되었다 [9]. 2004년 5월호(37권 2호)부터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로 잡지명을 영문화하여 발간

하기 시작하여, 2005년 11월 4일 MEDLINE 등재학술지가 되었다. 게재된 논문 수는 1968년 8편으로 시작하여, 2005년에는 62편으로 38년간 93호, 총 1,313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2006년부터 연 6회로 증편하여 게재된 논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2).

예방의학회지를 포함하여 예방의학과 관련된 역학, 의료관리학, 산업의학 분야의 학술지가 발간되었다. 공중보건협회가 1957년에 창립되었고 1975년에는 대한보건협회로 개칭하여 창립되어 대한보건협회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역학회가 1979년 창립되었고 한국역학회지를 발간하였다. 대한산업의학회가 1988년 창립되었고 대한산업의학회지를 1989년부터 발간하였다. 한국보건행정학회가 1988년 창립되어 1991년부터 보건행정학회지를 발간하였다. 예방의학 또는 예방의학자와 연관되어 발전되어 온 학회는 대한감염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대한병원감염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임상건강증진학회, 한국농촌의학회, 한국모자보건학회, 한국의료QA학회, 한국의학교육학회, 한국항공우주의학회 및 대한임상약리학회 등으로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 전문의제도는 1952년에 생겼으며, 예방의학은 1963년에 전문의제도가 채택되어 예방의학 전문의가 배출되기 시작하였고, 산업의학 전문의는 1996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예방의학전공의는 전공의 과정 중 예방의학회지에 제 1저자의 논문 및 관련 학회에 공동저자 논문 발표하게 하는 규정을 통하여 학술분야에 전공의의 참여가 증대하였다. 1997년에는 '벽은 이성관 학술상'을 제정하여 학회지에 우수논문을 게재한 전공의에게 매년 정기총회에서 시상하고 있다.

예방의학의 학술내용

1920년대 말 윈슬로우의 '공중보건이란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에 의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높이는 기술과 과학이다'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 예방의학전문의협회

는 '예방의학은 개인 또는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 유지, 증진하고 질병의 장애와 조기 사망을 예방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의학의 한 분야이다'고 정의하였다 [11]. 특히 예방의학이 인구집단 뿐만 아니라 개인도 대상으로 한다는 면에서 공중보건학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예방의학이 개인을 대상으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하지 않는다면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을 구별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12]. 즉, 예방의학은 개인을 대상으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다루어 온 예방의학의 학술적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방이 되던 1945년 이전 우리나라 의학은 일본을 통하여 도입된 독일 의학의 영향을 받아 페텐코퍼가 정립시킨 실험위생학을 토대로 환경위생학을 위생학교실의 강좌로 개설하여 해방 이전을 환경위생학 시대라고 분류할 수 있다. 해방 후 1959년까지 전쟁으로 많은 전염병이 창궐하였으나 국가 차원의 보건사업도 미미하여 예방의학의 수난시대라고 분류할 수 있다. 1960년대 5·16을 계기로 전체주의적 보건정책이 나오면서 예방접종을 통한 방역사업의 시작과 가족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인구문제 연구 및 산업의학의 중요성이 인식된 이 시기는 여명기라고 분류할 수 있다. 대한산업보건협회가 1963년 창립되면서 가톨릭의대를 중심으로 산업의학과 산업보건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 1970년부터 환경오염, 산업보건, 급·만성병의 역학, 손상과 중독이 증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 예방의학을 발전기라고 분류할 수 있다. 1969년부터 의료선교사 시블리가 거제 지역사회보건사업을 시작하면서 한국에 지역사회의학이 도입되었다. 이후 각 의과대학에서는 의과대학 정규 교과과정에 지역사회의학 강의와 실습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의과대학, 보건대학원과 예수병원 등에서 지역사회보건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1979년 한국역학회가 창립되면서

전염병 및 만성병에 대한 유병률, 발생률,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대한산업의학회와 한국보건행정학회가 1988년 창립되어 이 시기는 역학, 환경 및 산업의학, 의료관리학으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었다 [13]. 그러나 대한산업의학회가 창립되면서 대한예방의학회에서 산업의학의 분야는 일부 분리되었다.

1987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고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의 시작과 함께 의료체계, 의료보험, 병원관리 분야의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었다. 1995년 국민건강법이 제정되고,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공포되고 건강증진기금의 확보로 보건소에서 지역보건 의료사업도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2005년 건강증진기금이 확대되고 중앙 및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구성되어 우리나라 건강증진사업은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사업에 예방의학 분야의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역학, 환경의학 및 의료관리학에서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나갈 것이다. 2005년도 추계 대한예방의학회 구연 및 포스터 발표는 역학, 관리, 환경으로 구분되어 발표되었다. 역학은 대사증후군, 유전체/의료정보 및 통계, 전염병역학, 암, 뇌심혈관계, 건강위험요인, 고혈압/당뇨, 소아/청소년/노인으로 세분하여 발표되었고, 관리는 지역보건과 건강증진, 질병의 사회적 부담, 노인보건/장애인, 의료보장, 보건의료의 질로 세분되었고 환경은 환경역학, 산업보건으로 분류하여 발표되었다. 소주제들이 예방의학에서 최근 다루고 있는 중요 세부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 대부분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한 내용들이다.

학술활동의 발전방향

예방의학의 학문적 범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야 이에 준한 학술활동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안윤옥(1994)은 예방의학은 학문과 의술을 함께 시행하여야 하며, 학문의 주축은 병인론이어야 하고 의술은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대한 보다 전문적

인 시술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예방의학적 의료에 대한 사회적 및 시대적 요구가 '인구집단'이라는 집합적 대상에서 '개개인'으로 개별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진료에 대한 수련을 예방의학의 주요한 교육과정의 하나로 필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4]. 예방의학은 개인 또는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 유지, 증진하고 질병의 장애와 조기 사망을 예방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의학의 한 분야이므로 임상예방의학 도입에 대하여 학회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1]. 예방의학에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개인을 소홀히 한 경향이 있다. 대부분 임상의학에서 질병의 발생 원인을 개개인에 대하여 밝혀 나가는 것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었다. 개개인의 질병 발생 원인에 대한 추론에서 병인론이 발전하여 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개인의 질병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제3자가 개입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도록 조치하고 가설이 세워지면 가장 효율적인 연구방법론에 입각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면 많은 국민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임상예방의학을 통하여 개개인을 접촉하고 질병 발생 원인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은 예방의학자가 가장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일산화탄소 중독의 기전 및 치료법을 연구하여 전국에 고압산소요법을 보급한 예는 좋은 사례이다. 임상예방의학을 통하여 개인의 건강진단뿐만 아니라 집단 건강진단 등 건강진단 항목과 주기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05년 개정된 예방의학 학습목표에 학습 주제로 임상예방의학을 포함한 것은 고무적이다.

근거중심의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사켓은 근거중심 의학을 '가장 좋은 최신의 근거를 공정하고, 명백하고, 현명하게 사용하여 개개 환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15]. 근거에 기반을 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개개인에게 적용하고 연구를 통하여 근거를 마련해 가면서 인구집단에 적용하도록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은 예방의학자가 가장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신약개발의 활성화로 개발된 신약후보물질과 외국 개발 신약에 대한 안전성과 효능을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들에서 임상시험센터의 설립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예방의학 전공자들이 임상시험센터에 적극 참여하여 타당성 높은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설계 단계부터 자료관리 및 자료의 통계적 분석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16]. 잘 계획된 연구를 과학적으로 수행하여 그 결과를 환자진료에 필요한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가정의학, 응급의학, 및 산업의학을 포함한 임상 각 과의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전문의 이수 후 예방의학 전공의 과정을 이수하여 특화된 세부 전문의과정을 개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기획, 실천 및 평가 체계를 학술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보건교육 방법론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인의 건강위해도 평가를 비롯하여,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보건의료정책 수립,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기여하여야 한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빠른 속도로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출산율을 향상시키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학술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컴퓨터의 보급과 자동화 등으로 많은 자료가 축적되고 있어 정보관리 학술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적으로 축적된 자료를 이용하여 학술활동을 할 때 일부 자료에 대하여 타당도와 신뢰도 연구를 병행하면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 정보보호 및 의학윤리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대학병원의 전산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규모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약물의 중대한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검색

할 수 있는 약물부작용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그러한 체계를 가동시켜 파악된 약물 부작용에 대한 실마리정보를 대상으로 인과관계를 평가하기 위한 약물역학적 연구도 활성화시켜 국민들을 약화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16]. 테러를 포함한 재난과 손상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역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전공의에게 수여하는 ‘벽은 이성관 학술상’을 계속 시상하도록 하고, 2004년부터 시작한 ‘예방의학 예비연구자 학술논문상’을 계속 시상하여 의과대학교 학생 시절부터 예방의학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06년부터 대한예방의학회 우수심사자상을 수여하여 논문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예방의학회지의 질적 발전과 되도록 빨리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예방의학은 대한예방의학회가 창립된 1947년부터 60여 년간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1968년 학회지 창간 및 발간 횟수의 계속적 증가, 학술대회 발표 논문수의 증가, 타 분야와 공동 연구 및 교류, 국제 학술활동 참여 등 학술연구의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예방의학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임상예방의학과 예방의학 전문과의 도입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의학, 응급의학, 산업의학을 포함한 임상 전문의를 대상으로 예

방의학 전공의 과정을 수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예방의학 전문의가 임상 의학을 전공하여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거나 병행한 의과대학이 많다. 학부 과정을 마친 의학전문대학원생은 예방의학이 통합 및 응용 학문이라는 면에서 예방의학을 발전하여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이들을 예방의학에 유인하여 더욱 발전된 학술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학문이 점차 세부적으로 발전하여 서로 협력하지 않고는 학술활동을 발전시키기 어렵다. 기초의학과는 유전체 역학, 분자역학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여야 하며, 임상 의학과는 약물역학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보건학, 통계학, 영양학 등 타 분야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을 포함하여 아시아 및 전 세계적으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예방의학은 이론만큼 실천이 중요한 학문이다. 개인 및 인구집단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고 출산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 곳곳에서 실천하는 예방의학자가 되며, 이러한 이론과 실천을 학술활동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Meng KH. Future of preventive medicine education in Korea: hopes and challenges. *J Prev Med Public Health* 2006; 39(1): 7-12 (Korean)
2. 권이혁. 예방의학의 과거와 미래. In '97대한예방의학회창립50주년기념추계학술대

- 회연제집. 대한예방의학회. 용평. 121-129. 1997
3. Park HW. Infectious diseases in Korea before 1910. *Korean J Infect Dis* 1999; 31(6): 510-516 (Korean)
4. Kim JS. Changes in infectious diseases between 1900 and 1945. *Korean J Infect Dis* 1999; 31(6): 517-522 (Korean)
5. Choe KW. Trends in infectious diseases between 1950 and 1975. *Korean J Infect Dis* 1999; 31(6): 523-527 (Korean)
6. 유승흠. 광복후 의학의 발전상-대한예방의학회. 1997; 40(8): 968-971
7. 유승흠. 예방의학의 역사적 전개. In '97대한예방의학회창립50주년기념추계학술대회연제집. 대한예방의학회. 용평. 97-120. 1997
8. 홍성원. 흠에 심은 사랑의 인술. 쌍천 이영춘 박사기념사업회; 2003
9. 대한의학회 편. 의학회총람 2005년. 일간보사·의학신문사; 2005, (515-520쪽)
10. Hwang SI, Kwon BK. History of the Korean Medical Journals (1945-1995) - Principally on the basic science journals (1). *Korean J Med Hist* 1998; 7(1): 99-118 (Korean)
11. Park JH. Preventive medicine in times of a rapid epidemiologic transition in Korea. *J Prev Med Public Health* 2006; 39(1): 2-6
12. 예방의학 편찬위원회. 예방의학. 계축문화사; 2004, (19-21쪽)
13. 윤덕로. 예방의학의 발전방향. In 제37차 대한예방의학학술대회 자료집. 대한예방의학회. 경주. 1-13. 1985
14. Ahn YO. The object of education in preventive medicine residency. *J Prev Med Public Health* 1994; 27(4): 659-664 (Korean)
15. Sackett DL, Rosenberg WM, Gray JAM, Haynes RB, Richardson WS. Evidence-based medicine: What it is and what it isn't. *BMJ* 1996; 312(7023): 71-72
16. Park BJ. Current status of the drug safety monitoring system in Korea. *Pharmacoepidemiol Drug Saf* 2001; 10: 557-560